

### 어머니 모습으로 나투신 관세음보살

남종진 화백 개인전...스페이스선+에서 2월 18일까지



남종진의 '모자관음상'

모습을 그려 많은 불자들에게 관음보살님의 가피를 나누어주고자 하는 원력을 세웠다"며 전시의 취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그는 33관음보살도를 상징하는 33개 사찰과 미술관에서 전시해 보자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2010년부터 해인사, 봉은사 등 전국 주요 사찰 및 미술관에서 '33관음보살도'를 순회 전시 중에 있다. 이번 전시는 24번째로 이런 그의 원력이 반영된 전시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남 씨는 기존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에 치중하되 현대적 요소를 가

#### 홍련암서 만난 관음보살 작품으로 표현, 순회전시

미해 자신만의 작품을 표현해 냈다. 특히 '모자관음상'은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어머니로 표현했다. 남 화백은 "자비의 관세음보살이 약한 아이를 돌보며 중생을 이루만지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남 화백은 3월 영천 은혜사에서 25번째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남종진 화백은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생으로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을 수료했다. 다다갤러리(1998), 불일미술관, 해인사, 조계사, 범어사, 백석도 등에서 개인전을 연 바 있다. 저서로는 <33관세음보살 이야기(도서출판 운주사)>가 있다. (02)732-0732 정혜숙 기자

## “생명의 돌에서 자비의 부처님 발견했죠”

조각가 오채현... 3월 14~17일 홍콩아트페어 참가

“돌을 계속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형상이 그려져요. 그러면 돌 속에 감추어진 부처님의 얼굴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죠. 저는 돌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공만을 하죠. 그렇게 만지 털듯이 돌을 털어내며 원래 계시던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내요. 이 모든 작업이 형태나 격식이 아닌 직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행과정이지요”

오채현 작가는 자신의 작업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인위적인 조각의 느낌을 떠나 오랜 시간 풍화작용으로 마모된 듯 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 편안함과 부드러움이 마음의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며 심긔 미소를 짓게 만드는 작품을 보고 싶다면 어느새 따뜻함이 밀려온다.

염화미소, 석가모니, 약사여래, 아미타불 등 다양한 불상 조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모은 오채현 작가가 3월 14~17일 홍콩 아트페어에 참여한다.

소설가 윤희명 씨는 그의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돌은 그 정신을 옮겨 다시 태어난다. 그 돌에 피가 돌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수더분한 자세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아무렇지도 않게 보살도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뿐인가. 그 돌에 스며 깃들여 있는 장인의식이 예술의 깊은 자각을 일깨우고도 있는 것이다. 오늘 그의 조각 앞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심성을 되찾으며,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모은다”

이처럼 그의 작품 하나 하나는 묵묵히 돌 작업에 임해온 노고의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들어 감동을 준다. 그는 낙수물을 뿜듯이 지난한 시간을 거쳐야 작품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깨달은 자 부처의 형상을 이루어내고자 했다.

“돌은 단순하면서도 목직함 성질의 소재로 제 성격과도 잘 맞아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태리에서



오채현 작가

편안한 형상의 불상 인간미 넘쳐 낙수물 뿜듯 꾸준한 작업으로 작업 세계 개척해 나가고자 뉴욕 전시서도 한국문화 알려

5년간 공부하면서 돌이 가지고 있는 습성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동물 등을 소재로 했지만 깨달은 자 부처의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는 올 9월 미국 뉴욕에서의 전시도 앞두고 있다. 지난 2010년과 2012년도에도 뉴욕 전시를 가진 바 있는 그는 지난 전시를 통해 서구 문명의 폐해를 느끼는 서양인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한다.

“가장 중요한 물질문명 속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한계를 느끼는 이들이 바로 미국인들이죠. 그들이 불교에 갖는 관심은 무척 커요. 신앙보다는 자기 수행으로서의 불교에 무척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전통적인 소재와 방법으로 만들어진 깨달음의 상징 부처님의 모습을 미국인들이 무척이나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듯했어요”

이번에 홍콩아트페어에 전시될 '해피부트'를 한 해 오채현 작가의 행보는 바쁘다.



다양한 불상 조각으로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오채현 작가는 3월 14~17일 홍콩아트페어에 참가한다. 작품 왼쪽은 '염화미소' 오른쪽은 '해피부트'

다' 역시 구들장 돌인 얇은 판석에 부처님 얼굴을 새겨 벽에 걸 수 있도록 했다. 작품 하나가 20cm 돌 작품으로 다섯 부처님의 얼굴을 벽에 걸도록 했다.

“이 땅에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지친 현대인들을 끌어주고 앉혀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부처님일 거라고 생각해요. 깨달음을 얻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불두로 표현했다”

작가에게 돌 작업은 바위가 낙수물을 뿜듯이 매일 매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작업해 이루어내는 고행의 결과다. “전업 작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들이 출근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제 작업실로 출근해 하루의 작업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 작가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기교나 아이디어로 기발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척까지 꾸준한 전통적 방법으로 하루하루 저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 소명이지요”

올 한 해 오채현 작가의 행보는 바쁘다. 홍콩 아트페어에 앞서 3월 7~10일까지 열리는 붓다아트페어를 시작으로 홍콩을 거쳐 9월 뉴욕전시까지 그는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자 한다. 또한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오채현 작가는 1962년 경주에서 태어나 경북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마치고 이태리 까라라 국립미술아카데미 조소과를 졸업했다. 1991년 개인전을 시작으로 조계사(2002), 학교재(2007), 인사이트센터(2009), ABLEFINEARTNY(2010, 뉴욕), 청도문운사(2013) 등 총 23번의 개인전과 다수의 그룹전을 가졌으며 아트시카고(2008), 키아프(2007), 빼이징 아트페어(2012) 등에 참가했다.

2005년 바티칸 한국대사관에 한복 입은 성모상을 제작한 바 있으며 주로 거친 화강석으로 해학적이고 익살스러운 한국적 정서를 표현해내고 있다. 현재 경기도 파주에서 작업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스님들로 구성된 밴드 '우담바라' 결성

대구능인선원 혜장 스님 단장 전문 음악인 8명 멤버로 활동



밴드 우담바라는 8명의 스님으로 구성됐다.

8명의 스님으로 구성된 밴드 '우담바라'가 결성돼 화제다. 대구 능인선원 주지 혜장 스님을 단장으로 지난해 7월 오디션을 거친 8명의 스님으로 멤버를 구성, 지난 스님과 지연 스님이 보컬을 맡았다.

여기에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대원 스님(색소폰)과 지연 스님(콘트라베이스), 보화 스님(건반), 범상 스님(드럼), 수진 스님(기타) 등이 악기를 다룬다.

혜장 스님은 “모두 20년 이상 악기를 다룬 인재들이다. 2011년 봄부터 우담바라 결성을 꿈꾸며 전국에서 음악 잘하기로 소문난 스님들을 수소문했다. 100여 명이 지원했는데 오디션을 거쳐 오늘의 멤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우담바라는 지금까지 'Autumn Leaves', '잠자는 공주' 등을 연주해 찍은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 현재 1천 건 이상의 조회를 기록했다.

현재 대구 경북 현지에 흩어진 멤버들은 한번 모여 연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3월부터는 연습실을 마련해 합숙 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담바라는 앞으로 해금과 인디언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스님도 모집해 위문공연, 음악 봉사활동 등을 할 계획이다. 혜장 스님은 “교도소든 군법당이든 불러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대중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4월에 장단 공연도 가질 예정”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 세계 곳곳 흩어진 백남준 작품 파악한다

백남준문화재단 목록화를 위한 현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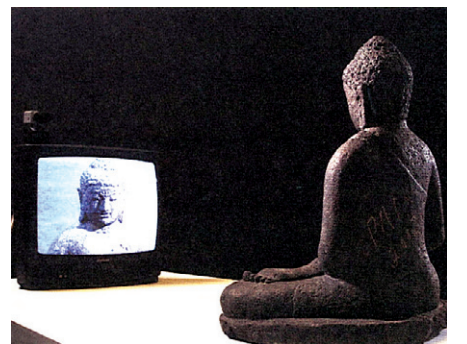
한국이 낳은 위대한 예술가로 세계미술사에서 비디오예술이란 장르를 창시한 백남준(1932~2006)은 신실한 불자로도 유명하다. TV부처, 백팔번뇌, 고려대장경, 테크노붓다, 손부처, 선(zen)을 위한 TV(1963), 달은 가장 오래된 TV 등 다양한 불교 관련 작품을 남기기도 한 백남준.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들에 대한 최초의 현황조사가 시작돼 눈길을 끈다.

백남준문화재단(이사장 황병기)은 백남준 씨가 전 세계에 남긴 작품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작업을 5년 동안 펼친다. 이에 1차년도 사업으로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 국내 소장 작품에 대한 정확한 실태에 조사에 들어간다.

백남준의 작품들이 전 세계에 산재해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돼 그의 예술세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평가하

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백남준문화재단 측은 “지난해 가을 출범한 백남준문화재단은 첫 사업으로 백남준 씨의 작품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조사해 그의 예술세계의 폭과 깊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인들이 그의 예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를 올바르게 평가하도록 하는 기초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백남준문화재단은 미술계와 기술계 등 각계 대표들로 자문위원회와 운영



백남준의 'TV부처'

위원회를 결성해 현황조사의 방법과 범위, 과정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전문연구원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자료화하게 된다. 정혜숙 기자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고·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4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야 상담 합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올먼 고당리 473-2

##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옥, 용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법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월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식,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본 총무원에서 교부)
-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승가회총무원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문 의 처** : 011-544-2605



##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